FASHION·AI

패션뷰티에도 'Ai 바람' 이제 스타일도 인공지능이 픽

인공지능 기술 접목해 개인 맞춤형 경험 고도화

패션·뷰티 업계가 AI(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쇼핑 편의 향상을 넘어 개인 맞춤형 추천과 콘텐츠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반품률·구매 전환율과 같은 고질적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업계에 따르면 패션·뷰티 업체들은 리뷰 요약, 사이즈 추천, 콘텐츠 큐레이션, 가상 쇼케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커머스 확산과 함께 커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CJ온스타일은 앱에 AI 기술을 접목해 리뷰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AI 리뷰를 확인한 고객의 주문 전환율은 40.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상품페이지를 클릭해 주문한 고객의 평균 주문전환율(19.4%)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롯데쇼핑의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은 지난 3일 고객의 피부 유형과 취향에 맞춘 뷰티 상품을 추천하는 신규 서비스 '뷰티 AI'를 새롭게 선보였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의 용도나 피부 고민 등 조건을 입력하면 이에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CJ온스타일은 올해 봄·여름(SS) 시즌을 맞아 업계 최초로 'AI 패션 쇼케이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AI 모델이 파리와 뉴욕을 배경으로 한 가상 런웨이를 걷는 모습을 구현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상품분류·등록 기능에도 AI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패션·뷰티 업계가 다양한 영역에 AI를 접목해 소비자에게 더 정교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초개인화 시대에 맞춰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FASHION

코오롱스포츠 '3대 기능소재'로 여름 시즌 본격 공략

적외선차단·흡습속건·에어홀 등 기술력 앞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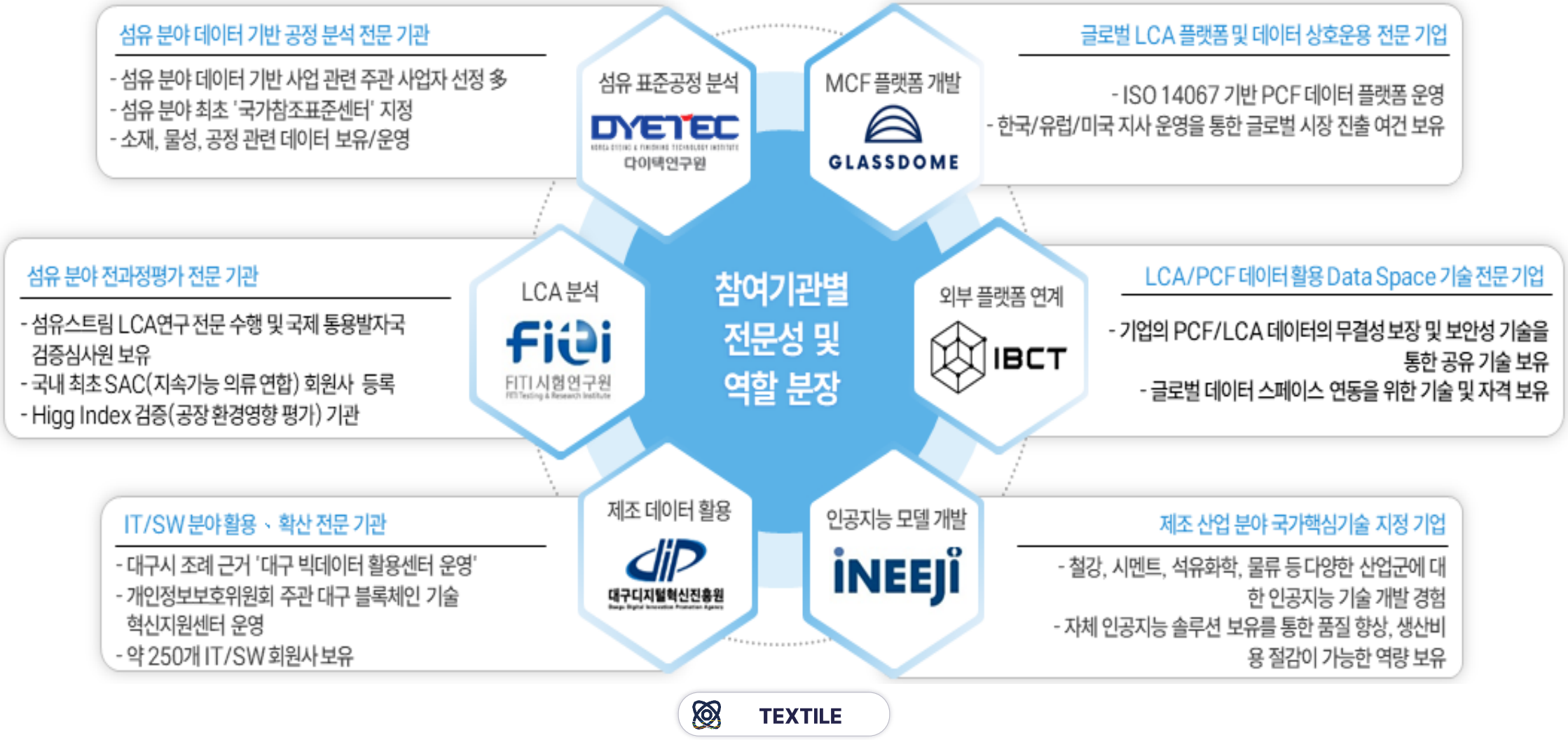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올 봄·여름 시즌에 3대 기능템으로 시즌 공략에 나선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성은 '솔라플렉트(Solar-Flect)'이다. 솔라플렉트는 적외선을 차단하는 기술로, 적외선은 태양광 중 가시광선, 자외선과 달리 강한 열작용을 가지고 있어 '열선'이라고도 부른다.

코오롱스포츠는 이 점을 착안, 적외선을 반사하여 태양볕의 열감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적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천연 무기물로 얇은 막의 형태를 원단 표면에 형성시켜 적외선을 반사, 산란시키는 방법을 적용했다.

두번째는 흡습속건 기능인 '플랫드라이'이다. 솔라플렉트와 마찬가지로 코오롱스포츠가 소재 업체와 협업 개발,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다. 강력한 흡수력으로 수분을 원단 표면에 빠르게 분산시켜 건조 속도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땀을 빠르게 기화(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으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시켜 체온 조절이 가능하다. 피부와 바로 접촉하는 반팔 티셔츠에 주로 적용했다.

세 번째 기능성 소재 '에어도트'는 격자 형태로 배치된 용융사(Melting Yarn)를 녹여 공간을 확보, 원단의 미세한 통기 구조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구조 덕분에 피부에 닿는 면적이 줄고 공기 흐름이 원활 해져 한여름에도 쾌적하고 시원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또한 마찰이 적고 가벼워 티셔츠, 팬츠 등 다양한 여름 상품에 적합한 기능성 소재다.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이 예상된다. 코오롱스포츠는 지난해부터 고객, 유통, 기후변화와 함께 상품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품기획을 진행, 선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오롱스포츠만의 기술력을 백분 활용한 상품을 대거 준비했으며 순차적으로 고객에게 선보여 이상 기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EXTILE

대구 섬유산업, 탄소발자국 플랫폼 구축 본격화… AI 기반 저감 기술 개발 나선다

DYETEC연구원 주관연구개발기관…섬유산업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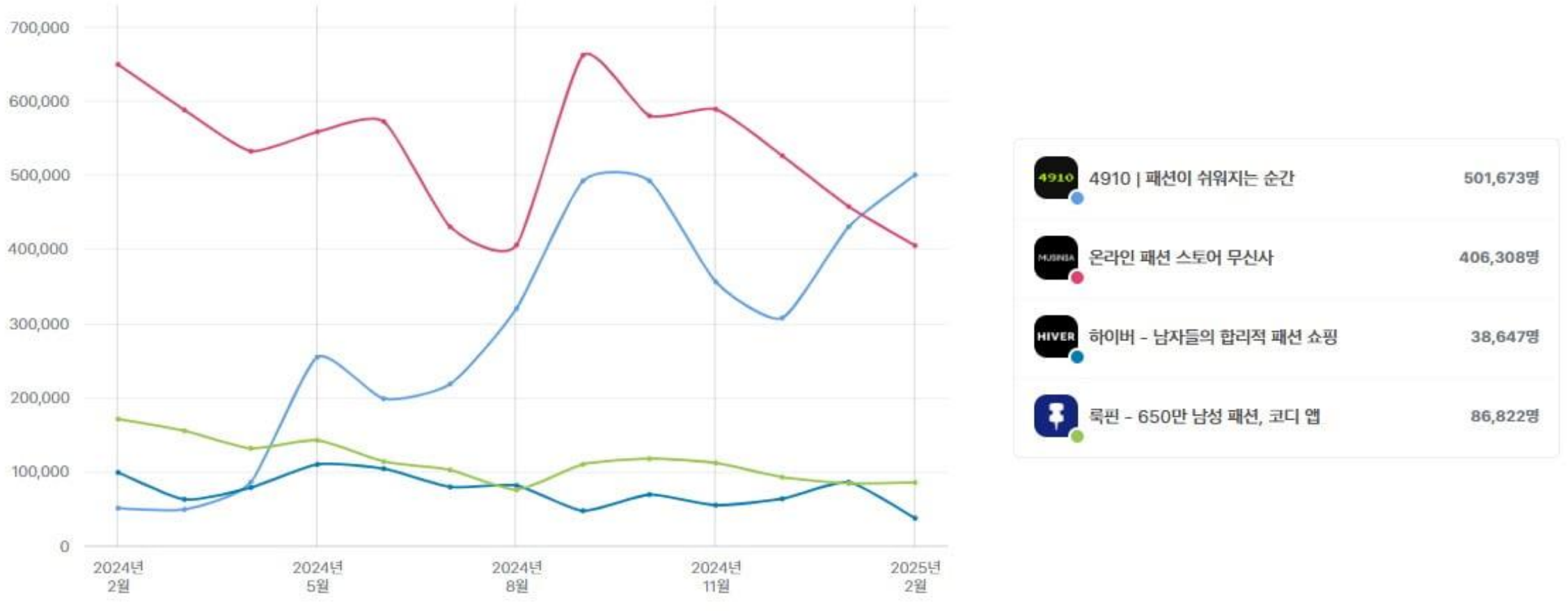
대구시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제조데이터표준인공지능활용 제품전주기탄소중립지원 기술개발(R&D)' 공모에서 '섬유산업 대상 제품 전주기 탄소발자국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탄소 저감 기술개발 '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DYETEC연구원과 함께 과제 수행을 위한 후속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나서며, 지역 섬유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국제 기준에 따라 인증 받는 절차가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선정된 과제는 DYETEC연구원을 중심으로 총 6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68억9천700만원을 투입해 제품 전주기의 탄소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탄소저감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섬유제품 제조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정밀 산정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 예측 및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관련해 DYETEC연구원은 지난 2월 독일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TÜV Rheinland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AI 추천 통했다"... 패션앱 성장세가 챗GPT보다 빠르다

대형 패션업계 '불황'...패션플랫폼 '호황' AI 기반 맞춤형 추천서비스 구매 전환 높여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패션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패션 플랫폼들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선호하던 이전과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업계에 따르면 패션 대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은 전년 대비 악화됐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지난해 매출은 2조 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매출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1조 3086억원에 그쳤다.

반면 패션 플랫폼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다. 무신사는 지난해 매출 1조 2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돌파했다. 에이블리를 운영하는 에이블코퍼레이션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3343억원을 기록했다.

무신사와 에이블리 등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 취향을 정밀하게 분석, 맞춤형 상품 추천과 코디 제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매 전환율의 크게 높아졌고, 소비자 만족도 역시 상승했다

모바일 앱 리서치 기관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4910 패션 앱은 지난해 설치 건수가 100만건 이상인 앱 가운데 전년 대비 월간활성 이용자수(MAU)가 가장 많이 성장한 앱 1위를 기록했다. 평균 MAU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챗GPT,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 등 인기 앱보다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과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주요 기술로 자리 잡았다"며 "얼마나 만족도 높은 개인화 추천 기술력을 가졌는지, 그에 따른 탄탄한 상품 구성이 향후 패션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귀띔했다.

FASHION TECH

TEXTILE

섬산련, '섬유 · 패션 업계 CEO 포럼' 개최

K-섬유패션의 NEXT를 공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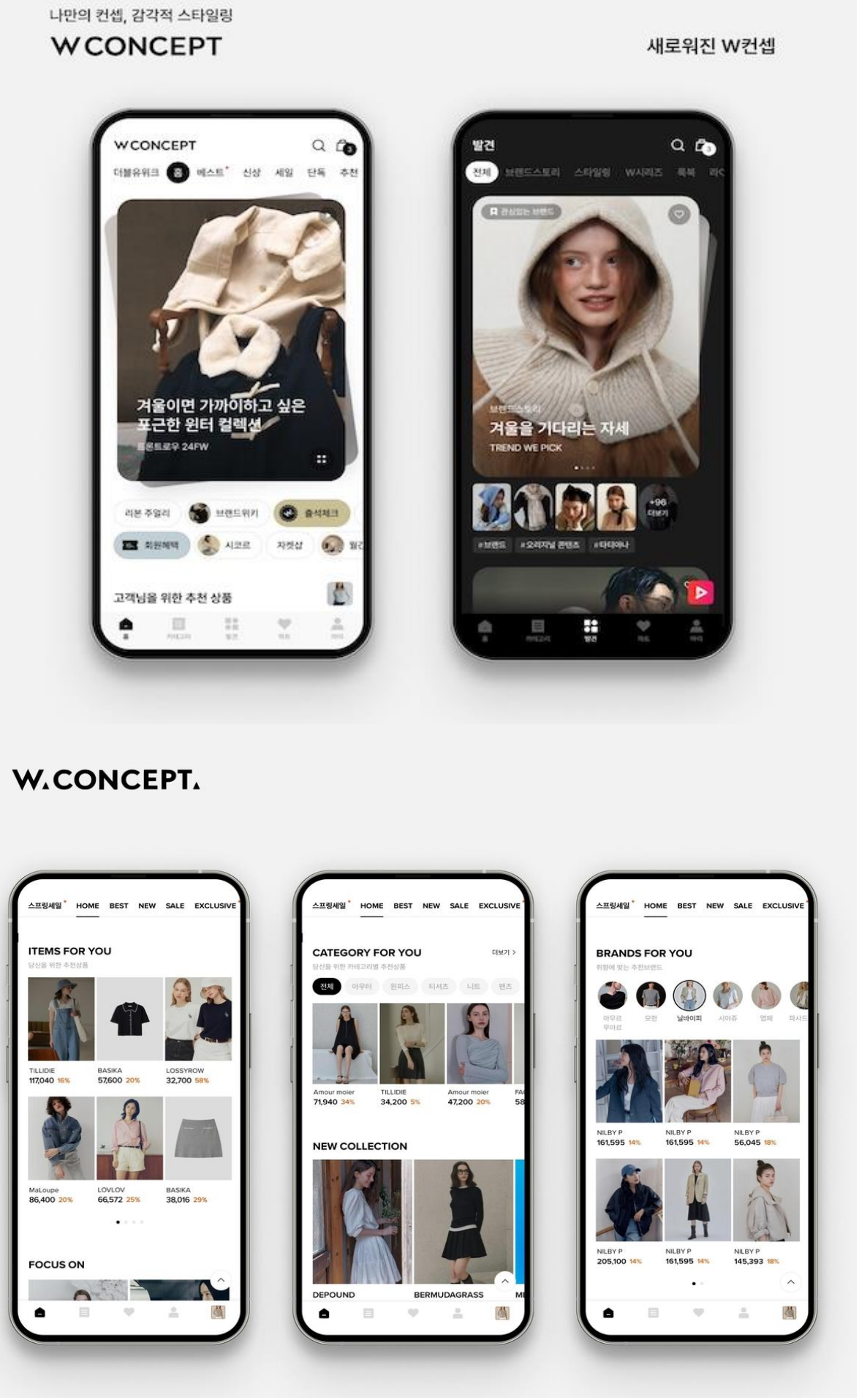
급변하는 경제 · 통상 환경 시대, 섬유 · 패션 산업 넥스트 비전과 미래 혁신 방향 제시를 위한 '2025년 섬유 · 패션 업계 CEO 포럼' 강연과 행사를 오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개최한다.

섬유 · 패션 업계 CEO 포럼은 섬산련이 2003년부터 매년 주최한 업계 최대 규모의 하계 포럼으로 올해 21회 째를 맞이한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국회, 국제기구 등 주요 인사들과 50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섬유 ·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항 성장을 위한 미래 혁신 방향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섬산련은 금번 포럼의 슬로건을 'K-섬유 · 패션의 NEXT를 공유하다'로 내걸며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외 충격에 국내 불확실성이 겹친 가운데 기업들의 유연한 미래 경영 전략과 스트림간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 강연과 다양한 CEO 교류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 강연은 미래시장(1일차), 혁신(2일차), 웰니스(3일차) 3가지 테마로 진행될 예정이며, 포럼 첫날인 2일에는 지난해 '섬유의 날' 금탑 수상자이자 글로벌 K-패션의 선두주자인 제이에스코퍼레이션 홍재성 회장이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K-패션의 성장가능성과 글로벌 진출 전략을 공유한다.

이어러 글로벌 섬유 · 패션 산업의 대표 국제기구인 '국제섬유생산자연맹(ITMF)'의 후안 파레스 부회장을 초청해 유럽의 섬유 산업 미래 비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할 예정이다.



FASHION

W컨셉에 AI를 입혔더니… ‘나만의 룩북’ 이 됐다

개인 취향에 맞춘 ‘초개인화’ 추천까지

패션 플랫폼 ' 에서 ‘콘텐스 커머스’로의 도약에 나선 W컨셉이 자체 앱 UI· UX 부문에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앱 개편으로 고감도 스타일링 콘텐츠를 개인에 최적화된 형태로 만날 수 있으며, 향수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홈 화면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고객 취향을 겨냥한 브랜드와 상품 자동 추천을 강화하는 등 초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확대했다. 특히 초개인화 추천 서비스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상품 탐색에 특화된 AI와 개인화 추천 기술을 접목한 것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뿐 아니라 W컨셉은 숏폼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차별화에도 역점을 뒀다. 브랜드 스토리와 스타일링 콘텐츠를 피드 형태로 모아보는 ‘발견’, 일반 고객의 스타일링 팁을 참고할 수 있는 ‘스타일클립’을 신설했다. 짧은 영상 모아보기 서비스인 ‘숏폼 플레이’ 역시 이번 개편을 통해 정식으로 선보인다.

W컨셉의 테크담당은 “개인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콘텐츠 중심의 개편을 통해 고객 쇼핑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설명하며, 간결하고 명확한 디자인의 적용으로 가독성을 높였다는 전언이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 이뉴스투데이, 패션·뷰티에도 ‘AI 바람’…이제 스타일도 인공지능이 ‘픽’, 25년 05월 05일
2. 데일리안, 코오롱스포츠, ‘3대 기능소재’로 여름 시즌 본격 공략, 25년 05월 07일
3. 매일신문, 대구 섬유산업, 탄소발자국 플랫폼 구축 본격화…AI 기반 저감 기술 개발 나선다, 25년 04월 22일
4. 한경닷컴, "AI 추천 통했다"…패션앱 성장세가 챗GPT보다 빠르다, 25년 05월 06일
5. FASHIONBIZ, 섬산련, ‘섬유·패션 업계 CEO 포럼’ 7월 2일 부산서 개최, 25년 05월 08일
6. Biz watch, W컨셉에 AI를 입혔더니…'나만의 룩북'이 됐다, 25년 04월 23일

CATEGORY

내용을 입력하세요.

기사 및 사진 출처

1. FASHIONBIZ, 바이스벌사, 2년 연속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 25년 2월 25일
2. 헤럴드경제, '2025년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다음달 5일 엑스코서 개막, 25년 5월 07일
3. 한국섬유신문, 섬산련 장학재단, 섬유패션 전공 미래인재에게 장학증서 수여, 25년 2월 28일
4. 탑데일리, 효성티앤씨, 폐섬유 활용해 친환경 가방 제작, 25년 2월 24일
5. 뉴시안, 서울시, 브랜드 런칭부터 판로지원까지... 동대문 패션 상권 살리기 나서, 25년 03월 04일
6. etnews, "AI 활용도 높인다"...패션플랫폼, 이미지 검색 고도화, 25년 03월 04일